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결정 규탄

“이재용, 욕심 비우고 양심 찾으라”

(삼성전자 부회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향해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라”고 전했다.

지난 30일 정의구현사제단은 전날(29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단돈 60억원을 20년 만에 9조원으로 불린 세계적 부호, 20년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15만%에 이르는 환상적 재테크의 주인공 이재용. 하지만 그의 승승장구는 대부분 양해 짓이었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이용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유치한 술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재판부마다 대체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면서 눈 감고 아웅해줬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밑바탕부터 흔들며 놓는 해악이었다”며 “이런 범죄야말로 반체제적, 반국가적 사범인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씨의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검사들도 봐주고 판사들도 알아서 눈감아 줬지만 그들이 왜 그



랬지도 우리는 훤히 알고 있다”며 “가질 것을 가져야 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만 이를 것을 이룬다고 했다. 하지만 이견회, 이재용 부자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2007년 10월29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삼성의 범죄를 문제 삼았다. 이듬해인 2008년 4월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사제단은 이에 대해 “그것으로 사제의 사회적 분신을 다뤘다고 봤고 더 이상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른바 ‘삼성 문제’에 활발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독재자 박근혜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 총수를 감옥으로 보냈던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주가조작에다 회계사기도 모자라서 오로지 일신의 탐욕을 위해 국가 권력자와 뇌물로 거래하고 모두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까지 손을 뻗치고, 그러면서도 코로나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면서 못 본 체 해달라는 저 파렴치한 행위는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죄와 처벌이라는 지당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언짢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됐고 보란 듯이 불의가 승리하는 그때마

다 평화는 조각났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결국 그들 또한 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주도한 것과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승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친대기업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음을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 16억2800만원을 준 것은 승계 작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었음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앞둔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법원은 추상같은 처벌로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 만시지탄이나 조준용 삼성 특검이 이견회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올바로 기소하고 법원이 제대로 처벌했다더라면, 아니 그 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불법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책 없는 ‘오너’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임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판관들을 아랑하게 만드는 이 조직적 범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반칙과 불의에 주눅 들거나 무기력하게 물러서지 말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화예술교육 신규단체 키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3일부터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단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이 문화예술교육 분야 신규단체 육성·지원에 나섰다.

재단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2020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큐베이팅이란 ‘인적·물적 지원으로 벤처 회사의 성장을 돕는다’는 뜻으로,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신생단체에 현장 실용 전 단계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신규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으로, 14개 시·군 중 문화 소외 지역(장수군·부안군·무주군 등)의 단체 지원 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5개 내외 단체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이론, 사례 연구 등 총 10회의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거쳐 9개 내외 단체를 선발해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약 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2, 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뮤지컬 ‘홍도 1589’

뮤지컬 ‘홍도1589’ 관람료 40% 할인

전북문화관광재단, 19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7월 19일까지 뮤지컬 ‘홍도1589’ 관람료를 40% 할인한다고 밝혔다.

여행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여름철에 집중된 국내 여행을 분산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내 관광업계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특별주간이다.

이 기간에 전북을 찾은 관광객과 도민 등 모든 관람객이 뮤지컬 ‘홍도1589’를 40%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은 “홍도1589가 여행주간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선물이, 도민들에게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홍도1589’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지침을 준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주간인 7월은 공연장 방역을 위한 안전조치로 매주 수·토요일에만 공연한다.

공연에는 네이버 티켓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 포함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유천리·진서리)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길 열렸다’

군, 문화재청 신규 공모에 선정

부안 유천리·진서리 요지가 포함된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문화재청 신규 공모인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부안 유천리·진서리 요지가 포함된 ‘한국의 고려청자요지’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경쟁력 있는 신규 잠정목록을 발굴해 연구지원 및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약 4개 유산을 지원한다.

군은 전남 강진군 및 해남군과 공동으로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연속유산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학술대회 등의 내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과 강진·해남군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 및 실무지원, 전문가 인력풀을 추천받고 이를 토대로 자문단·집필단 구성 및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이준호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의 의미는 부안고려청자 유적의 세계유산 가능성을 문화재청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단계별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관광공사, 중서 한국여행 판매 재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상품 판매가 재개된다.

한국관광공사는 7월 1일 중국 씨트립(携程)과 공동으로 ‘슈퍼보스 라이브쇼(Super BOSS Live Show)’를 통해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씨트립은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Trip.com Group)의 중국 브랜드다.

씨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쇼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등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실시간 방송 판매와 달리 트립닷컴의 공동 참여자 중 한 명인 랑젠장 회장이 직접 출연해 해당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호텔 숙박권과 관광상품의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뉴시스

취업 명문 전주비전대학교

취업률 76% [2019 교육부 발표]

삼성, LG, 현대, SK, 한화, POSCO, CJ, KT.. 등

장학금 1인 373만원

2인1실 호텔식 기숙사

Good 태권도 시범단 여자 농구단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정

2020.09.23(수)~2020.10.13(화)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www.jvision.ac.kr 063-220-4000